

“손 맞잡은 남북 가슴 벅차...이제 통일의 날도 곧 오겠죠”

남북 정상회담 지켜본 명상엽 이북5도 연합회장

북녘 고향 동생 만나는 모습 상상하느라 매일 밤잠 설쳐 한때 1000여명 달했던 광주 실향민 100명도 채 안남아 대부분 80대 후반...“이번이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기회”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남과 북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더군요. 이제 통일의 날도 곧 오겠죠?”

명상엽(88·광주시 서구 양동) 이북5도 연합회장은 27일 TV뉴스 속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 서구 양동양호경로당에서 만난 명씨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땅을 밟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면서 “만남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듯 하다”고 감격스러

워 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월남한 명씨는 이날 군사분계선에 선 문 대통령의 모습이 누구보다 남다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한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져 이산가족 상봉 등이 현실화되고, 통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명상엽씨는 “지난달 6일 갑자기 뉴스속보로 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



27일 TV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명상엽 이북5도연합회장이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하며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실향민들도 고향을 오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88세인 명씨는 “이제는 정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며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동생 4명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인데, 이번 정상회담이 고향 땅에 있는 동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듯 싶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최소한 남북 정상 간 연결된 ‘핫라인’(HotLine·직통전화)처럼 가족간 전화통화만이라도 할수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명씨는 요즘 북에 있는 동생들을 만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느라 밤잠을 설쳐 정도라고 했다.

그는 “TV를 통해 실향민들이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동생 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마다 생각했다”면서 “너무 간절한 나머지 꿈속

서도 만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그동안 북에 있는 동생들을 찾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명씨는 언젠가는 동생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명씨는 “벌써 구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동생들과 행복했던 어린시절의 기억은 생생하다”면서 “언제나 꿈꿔왔지만 이제는 동생들을 만나도 세월이 너무 흐른 탓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1952년부터 66년 가까이 광주에서 살아온 그는 망향의 그리움을 참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

명씨는 예비군 중대장을 시작으로, 양동 18개동장단 회장, 광주시 노인회장, 이북5도연합회장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실향민인 명씨는 이북5도연합회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크지만, 이번 달을 끝으로 회장직을 실향민 2세대에 물려줄 생각이 다.

명씨는 “현재 광주에 거주중인 실향민 중 북에서 내려온 1세대는 한때 1000여명에 이르렀지만, 이제 100명도 채 안 남았다”면서 “현재 대부분 80대 후반의 고령인 실향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가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해 대기중인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수는 모두 1347명(광주 544명·전남 803명)이다. 지난 1988년부터 전국에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수는 13만153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7만3611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5만7920명에 불과하다.



역사적인 순간 초등생들도 환호 27일 오전 광주서 남구 백운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이 교실에서 남북정상회담 TV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두 정상이 악수를 하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터넷 ‘떡볶이 사기’ 20대 검거

인터넷에 ‘휴대전화 등 물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22)씨

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려 B(20)씨 등 37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박영진기자 phi@kwangju.co.kr

‘죽음의 무단횡단’ 영상 확산 논란

광주 쌍촌동서 여대생 1명 사망·1명 부상...국민청원 놓고 시끌

최근 광주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서 서구 치평동 맥도날드 앞 왕복 9차로에서 이모(여·23), 조모(여·23)씨가 이모(41)씨의 소렌토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이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함께 있던 조씨는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광주지역의 한 대학 4학년으로, 각각 부산과 전북이 고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뒤 반대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한 장

소는 횡단보도와 육교와는 1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걸어가던 대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전방주시 태만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속·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건네받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운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다만 육교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NS와 유튜브에 공개된 사고 영상은 해당 사고차량이 아닌 또 다른 차량에서 녹화한 것으로, 운전자가 모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올리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더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포함된 ‘무단횡단 사고 과실 여부’라는 제목 청원 글과 다수의 글들이 올라왔다. 27일 오후 5시 기준 5210명이 청원을 동의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5 해질 17:27
해강 19:15 달강 04:54

미세먼지·자외선 조심하세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5	보성	맑음	7/21
목포	맑음	11/20	순천	맑음	10/23
여수	맑음	12/21	영광	맑음	8/21
나주	맑음	8/23	진도	맑음	8/21
완도	맑음	12/23	전주	맑음	9/24
구례	맑음	7/25	군산	맑음	9/19
강진	맑음	8/23	남원	맑음	7/24
해남	맑음	7/22	축산도	맑음	9/17
장성	맑음	8/23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부	남동~남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해 서부	남동(동)~남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보통	뇌출중	보통
감기	나쁨	미세먼지

날짜	날씨	기온
29(일)	☀	11/24
30(월)	☀	14/23
5/1(화)	☀	13/24
2(수)	☁	15/19
3(목)	☀	11/18
4(금)	☀	10/23
5(토)	☀	11/25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